

우른의 나무

이 오래된 나무는 지역에서는 우른의 나무로서 알려져 있습니다. 사포테과의 상록수로서 해변에 가까운 저지대에서 자라며 바람막이나 집 울타리로 사용될 때가 많은 나무입니다. 수령 400 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나무는 높이가 약 12m 에 이르며, 타원형 수관은 남북 13m, 동서 18m 이상으로 퍼져 있습니다. 이 종으로서는 오키나와현 내에서 최대의 크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.

다네토리는 이듬해의 수확을 위한 벼씨가 지역의 농가에 배포되는 중요한 축제였습니다. 이 나무 아래에서 쇼와(1926~1989) 초기까지 열렸던 행사였습니다. 축제 기간 중에 짚으로 지붕을 인 오두막(지역 말로 ‘우른(御殿)’이라고 알려진 신성한 구조물)이 여기에 설치되었습니다. 섬 주민이 늘 특별하게 손질해온 이 나무는 1998 년에 마을 문화재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.